The 20th 2003~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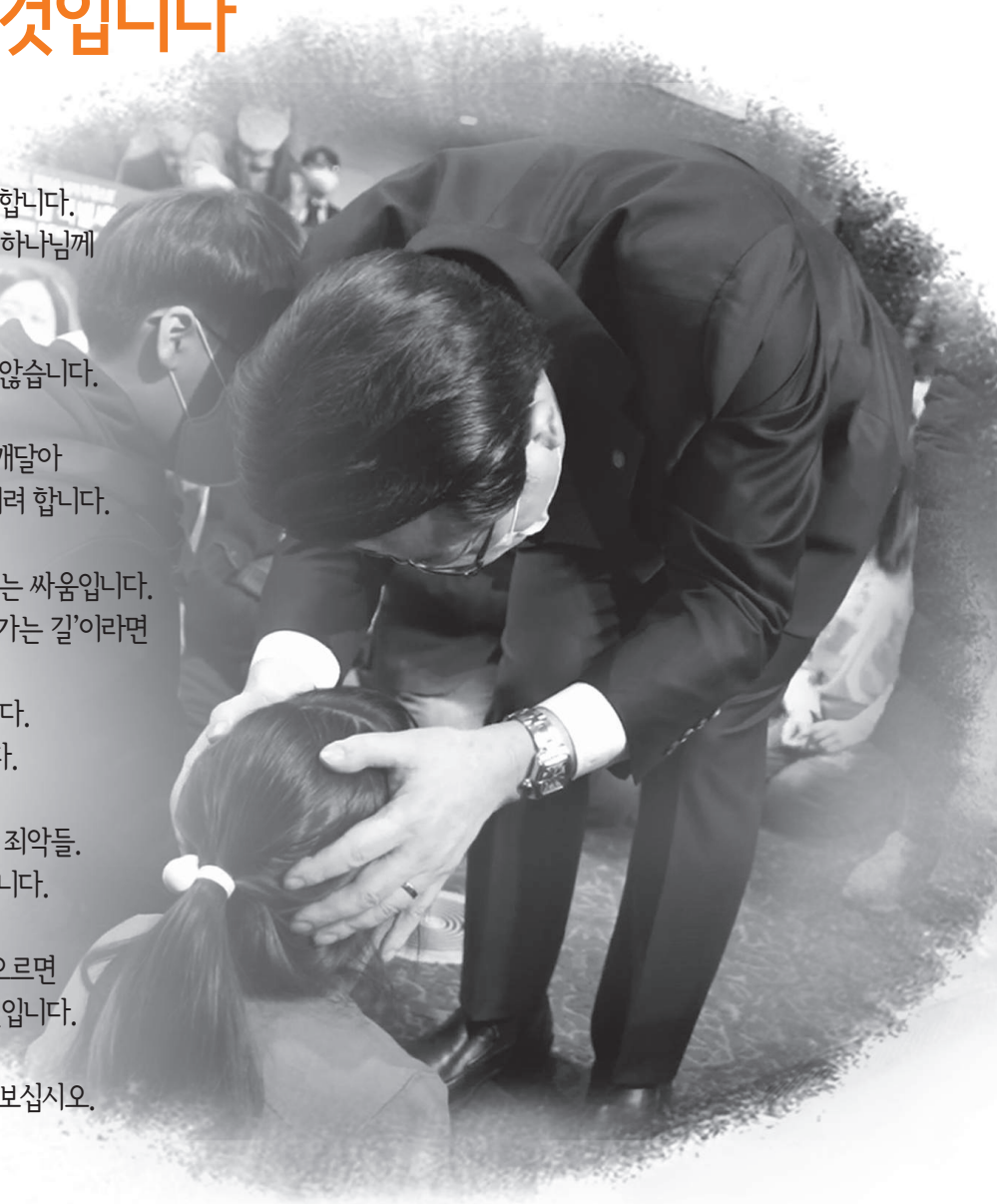
제20차 봄 글로벌 특별새벽부흥회

거룩한 재헌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Holy Rededication, Moving beyond Restoration into Revival

뉴스레터 News Letter 256호 주후 2022년 4월 19일(화)

끝으로 갈수록 더 좋은 잔치가 될 것입니다



시작보다 끝이 더 좋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인생은 멀리 봐야 합니다.
끝이 더 좋은 인생은 사건 자체보다도 과정에 주목합니다.
멀리 내다 보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전존재를 내어놓고 겸손히 엎드립니다.

이 사람은 이미 결정된 것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더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주님의 심정을 더 깨달아
그러므로 주님 앞에 더욱 쓰임 받는 거룩한 종이 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다, 완벽히 이겨 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믿는 이의 인생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면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는 이 길,
나의 현재는 끝이 더 좋을, 천국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멀리 내다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을 방해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추악한 죄악들.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특새에 나오면 됩니다.
특새에 나와 주님의 임재에 자신을 저며 놓으면
어린아이 같은 찬양의 잔치에 자신을 맡기고 뛰어오르면
어린 양 같은 사자가 되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멀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실 담대함을 바라고 얻으십시오.
특새가 잔치요, 인생이 찬양될 것입니다.

주후 2022년 4월 18일 후집회 중에서

TODAY'S PRAYER 고난의 터널에 은혜의 물꼬가 터지게 하옵소서

1. 제20차 봄 글로벌 특새를 통해 믿음으로 무장된 기도의 용사가 되어 눈물로 부르짖을 때, 모든 한계 상황과 고난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강력한 기름부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2. 세워주신 강사님(장경동 목사님, 칩 잉그램 목사)과 담임목사님 위에 압도하는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부어주사 온 성도가 복음의 야성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응답의 새지평이 열리게 하옵소서.
3. 사랑글로벌아카데미가 제20차 봄 글로벌 특새를 통해 통절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생활 부흥에서 국가 부흥'까지 부흥이 파도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 요약 Re

신앙여정의 도전

(롬 12:2)

조쉬맥도웰 목사(조쉬 맥도웰 미니스트리 대표)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교회를 향한 당연한 도전이 있습니다. 이 도전에 올바른 도움을 주지 못하면 영혼들을 잃거나 그들에게 상처 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첫 번째 도전은 **'외로움'**입니다. 미국에서 매일 약 7천 명의 사람들이 이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울증'**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불안'**입니다.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적 갈등이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정신 건강'**입니다. 미국 청년의 약 50%가 정신 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마지막 도전은 **'음란물'**입니다. 매일 전 세계의 약 8천 7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각종 미디어로 음란물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이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로 **깊은 교제의 관계**로써 한 영혼 한 영혼과 인격적 교제 관계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둘째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부부의 결혼 관계, 부모와 자녀의 멋진 관계가 살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물어보십시오. "여보 배우자/남편/아내/아빠/엄마/성적파트너로서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리고 심비에 새기십시오. 지역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세상의 소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교회가 보루가 되지 못한다면 세상은 해답이 없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세우라

(막 14:3-9)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신앙의 기본기 중의 한 가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일 가운데 그것을 사건 중심으로 볼 것이냐 과정 중심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가지 일로서 그 일을 선하다 고백하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은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천국이다'라고 말합니다.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 일을 자기중심적, 개인적, 이기적 관점으로 일어난 일을 해석하는 어떤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종교적인 눈으로 보면 향유 옥합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이 여인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화가 납니까? 우리가 내 기준을 가지고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반응한다면 그것이 은혜받은 삶이며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는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고난을 지날 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특새 둥이 Re

정서연 (대학1부)

심적으로 지칠 때, 결심으로 **특새에 나오니 흔들렸던 신앙이 회복**되었어요. 주님은 부담과 좌절로 지쳐 눈감은 절 안아주시어 눈물짓게 하셨고, 상처를 치유하셔서 주와 함께하는 기대로 두려움이 없게 하셨어요. 언제나 **메마른 땅에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생명으로 살게하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박채겸 (대학5부)

하나님은 저에게 좌절을 안겨주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무릎부상과 기면증으로 모든 꿈들이 좌절되었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방황했어요. 그러던 중 특새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깊이 날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며, 매순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어요. 부족하고 약한 자이지만 지금도 수많은 훈련으로 단련시켜주세요. 20차 봄특새로 다시금 **연단하여 성장케하며 풍성한 은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박지은 (대학6부)

특새는 마음의 안식처에요. 주님과 더욱더 만나 마음의 울림과 감사를 얻기 때문이에요. 지난 특새에 마룻바닥에 앉아 자녀들과 함께하던 성도님들과 아이들 모습이 지금도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19차 가을특새에 전참을 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감사한 마음으로 훈련을 받고 있어요. 이번 20차 특새는 **더 놀랍도록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길 소망해요!

남궁이레 (대학7부)

학교에 가야되는데 새벽부터 일어나 깨어있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셔틀을 타면서 잠깐 쐬는 새벽공기가 행복하게 했고, 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니 참 감사하더라고요. 특새를 20년이나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인생도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실 여호와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것이 은혜라 고백**하며 살길 소망해요!

강단의 은혜 Re

최은유 (유년부 2학년 제자훈련생)

어른 예배에서 많은 사람이 폴짝폴짝 뛰며 찬양할 수 있어 너무나 기뻤어요. 말씀 중에 제가 화나고 억울해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고 하신 말씀 생각하며 화내고 싶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빠가 빨리 교회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기쁨을 나누게 해 주세요.

정윤진 (다윗중등부)

시험이 4일 남은 상황에서 밤을 새우고 특새에 참석하였습니다. 부담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를 주셨고, 전참이라는 한계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게 하셨으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조하림 (유아부 교사)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보이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마음에 울리며 지난 13여간의 주일학교 사역을 돌아보았습니다. '나의 기준'보다도 한 영혼 한 영혼인 '아이들'이 더욱 소중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예쁜 아이들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실 때 존재만으로도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며 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숫자로 알아보는 특새 Re

- **1차**부터 **19차**까지 참여한 총 성도 수는 **현장참여**와 **인터넷 참여**를 모두 더했을 때에 약 **2,340,915명**이다.
- 팔 하나 길이로 거리두기 50cm 간격으로 **총 참여 성도님**들을 줄을 세우면 **약 1170km**가 된다.
- 이 거리는 **백두대간로드(백두산-두류산-금강산 설악산-오대산-태백산-속리산-덕유산-지리산) 거리**와 비슷하다. **(1200km)**
- **제2차 특새**부터 이어져온 지난 **19년**의 **내 영혼의 풀 콘서트의 찬양 곡 수는 269곡**이다.
- **제2차 특새**부터 이어져온 지난 **19년의 내 영혼의 풀 콘서트**의 **총 러닝타임은 1315시간 12분** 이다.
- 쉬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듣기 위해서는 54일 19시간 12분이 걸린다.**
- **가장 많이 부른 곡**은 동일하게 **세번** 반복하였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창조의 아버지'**이다.
- **가장 긴 시간 부른 곡 top3**는 **1위**로 12분 12초을 부른 **'내 평생 가는 길'**, 공동**2위**는 9분 50초을 부른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 하나님의 사랑'** 이고 **3위**는 9분 48초를 부른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이다.

신임교역자 소감 Re

설성환 목사(목양3팀)

특새 전야제와 특새 첫째 날 사랑의교회 영가족들이 안아주심의 본당을 가득 채우고 전심으로 주님께 드렸던 예배는 미래의 부흥을 앞당긴 현장이었습니다. 이번 특새를 통하여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반 동안 갇혀있던 과거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현재 진행형의 부흥 역사로 전환되는 현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새를 기점으로 사랑의교회가 한국교회 부흥의 진원지로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고영민 목사(목양 5팀)

스무 번째를 맞이한 특새의 찬양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마치 그동안 움츠려 있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부흥의 문이 활짝 열리는 영광의 현장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두려움과 연약함으로 낮아진 저에겐 아주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회복된 특새의 기쁨이 저를 다시 주 앞에서 춤추게 합니다. 뛰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바로 천국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전력투구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안바울 목사(목양5팀)

할렐루야! 어둠을 뚫고 광명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웠던 코로나의 고난의 터널을 가장 앞서 돌파하는 선봉장으로서의 사랑의교회 저력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사랑의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때론 힘든 일이 찾아와도 끝까지 우리 사랑의교회 영가족 성도님들과 함께 걸어갈 회복을 넘어 부흥의 길이 기대가 되는 아침입니다.

오규현 목사(목양6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이 은혜의 현장에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일 전야제와 월요일 새벽을 보내면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를 은혜의 용광로 안에서 더욱더 강하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특새의 모든 시간을 통해 저의 믿음의 용량을 키우시고, 사랑의교회에서 저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어 믿음의 전성기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김태형 강도사 (청년 5국)

오늘 주신 말씀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부흥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어떤 일 가운데 내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면, 이제는 내 시각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상황을 보고 또한 사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의 선상에 놓인 내 인생,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김인기 목사(대학 4부)

이번 20차 봄 글로벌특별새벽부흥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안아주심의 본당에 찾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성도님께서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거룩한 재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셨고, 새벽 3시도 채 안 되어서 가득 채워진 안아주심의 본당을 바라볼 때, 이미 "회복을 넘어 부흥"이 사랑의교회와 모든 성도님께 임하였다고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일 특새 때 부어주실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사랑의교회를 통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부흥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알림 Re

1. 기도주제
오늘의 기도 주제는 **'고난의 터널에 은혜의 물꼬가 터지게 하옵소서'** 입니다.

2. 강단초대
* 오늘 : 남, 여, 여직장인 순장반 * 내일 : 권사회, 안수집사

3. 강사소개
*오늘: **칩 잉그램 목사 (리빙온디엣지 대표)**
'위대한 기도의 5가지 특징' (눅 11:2-4)
장경동 목사 (중문교회)
'새 인생' (눅 15:32)
*내일: **필립 라이켄 목사 (휘튼 칼리지 총장)**
'기도의 용사들' (시 108편)
최병락 목사 (강남중앙침례교회)
'기도하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출 17:8~16)

4. '거룩한 재헌신' 특새기도카드 활용안내
특새 기간 중 응답 받기 원하시는 기도제목을 적어서 각 예배실 입구에 비치한 카드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교역자들이 목자의 심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본당, 은혜채플, 사랑아트채플을 제외한 부속실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남, 북측 1층 출입문에 위치한 기도카드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5. 유튜브 '사랑On' 구독
사랑의교회 유튜브 채널 '사랑On' 을 통해 쏟아지는 은혜의 잔치현장을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설정하여 은혜받는데 선수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6. 주차 안내
- 교회주차장, 마제스타시티 지하 6,7층: 월요일- 금요일 2시 30분- 7시 30분까지(이후 유료), 토요일 2시 30분~오전 10시까지 (입차 시 주차권 배부).
- GS파크 24: 월요일- 금요일 2시 30분~ 7시 30분까지(이후 유료).
  토요일 2시 30분-오전 9시 30분까지.
  성숙한 주차문화는 교회의 얼굴입니다.

7. 은혜 게시판 활용
값진 보화보다 귀한 은혜를 특새 <은혜 게시판>에 보관함으로 은혜의 수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 은혜 게시판 **50-250번** 글을 작성하신 성도님께서는 남측 1층 안내데스크에서 **'청춘음료'**를 선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작성하실 **200명**의 성도님께는 **담을수록 은혜**가 되는 **'특새 장바구니'**를 드립니다.

*한국교회/세계교회 성도님께서는 SaRang On YouTube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나와있는 <연합특새 홈페이지> 링크 http://revival.sarang.org/index.asp 를 클릭하셔서 은혜 게시판 (Reflection Blog)에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보물같은 주의 은혜, 쏟지 말고 담아 두자!

발행인 오정현 **기획** 특새 TFT **발행처** 사랑의교회 www.sarang.org

은혜 게시판

20년간 한결같은 특새의 은혜_ 유용선
2003년 9월, 첫 순장 파송과 함께 맞이한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왕께 만세!"를 찬양하며 꿈 같은 은혜의 40일을 보냈던 것이 어제 일 같은데,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오정현 담임목사님께서 40일 특새 중간에 과로로 인한 몸살로 쓰러지셨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수간호사로 계시던 한 권사님이 급하게 오셔서 링거 주사를 목사님께 놓으시고 계속해서 40일 특새를 강행군 하셨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시니어 다락방에서 순장으로 섬기고, 20년 넘게 안내봉사를 한 덕분에 특새도 자연스럽게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개근 할 수 있었습니다. 20년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돌 특새의 첫날_ 양은희
우리 아들은 특새둥이 입니다. 남편이 특새에 참석 후 배 위에 손을 얹고 특새찬양을 하며 축복했던 아이가 올 해 대학부 새돌이 되어 20번째 특새를 더욱 특별한 마음으로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믿음의 다음세대를 보는 것도 영광인데 믿음의 탯줄, 은혜의 젖줄인 특새와 함께라니.. 특새가 있는 한 아들의 삶도 걱정이 없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새벽입니다. 할렐루야!

특새잔치 은혜에 감사합니다_ 이시훈
매번 특새 때마다 넘치는 은혜에 감격하는데 이번 특새도 전야제부터 첫날까지 예사롭지 않습니다. 불편하실텐데도 한 성도님이라도 더 자리 확보 위해 말씀드릴 때 흔쾌히 은혜 나눔에 동참하여 자리 마련해주시는 영가족들 통해 뭉클하기도 하고 안내 봉사의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후집회 끝나고 예상치 못하게 막내와 함께 아내가 나타나 큰 선물이었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기를! 특새의 거룩한 루틴 계속 사수하겠습니다! 위선과 독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MBTI 성격 유형별 '후집회' 참여하는 법

성격을 결정하는 4가지 요소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가?	E(Extraversion) : 외향성	I(Introversion) : 내향성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S(Sensing) : 감각형	N(iNtuition) : 직관형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	T(Thinking) : 사고형	F(Feeling) : 감정형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하는가?	J(Judging) : 판단형	P(Perceiving) : 인식형

ESTJ 열정적으로 찬양하되 박수는 절제된 동작으로 친다.
ENFP 기뻐 뛰며 찬양하자고 하면 신나게 뛴다. 간혹 무대 앞으로 나갈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
ESFJ 찬양시간에 가만히 앉아 멀뚱히 있는 사람들이 신경이 쓰인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다가가서 돕고 싶다.
ESFP 옆사람의 흥을 돋궈주며 찬양한다.
ISTJ 박수치는 것은 문제없다. 그런데 뛰자고 하면 몸짓이 스스로 어색해서 가만히 박수만 친다.
ISFP 찬양인도자의 인도에 순종적이다. 하자면 한다.
INTJ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자고 해도 잘 안 일어난다.
ISTP 남들이 손들면 따라 손들고, 남들이 박수치면 따라 박수친다.

둘째날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길이 **'천국길'** 입니다.

출석표의 절취선을 오려 출석부에 붙여주십시오.